

인고의 시간

KOSPI 6,856pt (+0.7%), KOSDAQ 784pt (-1.9%)

① 해외 상황 유가 급등, 반도체·메모리 동반 약세

- 전일 미국 주식시장 하락(S&P500 -0.8%, 나스닥 -1.6%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-4.8%). 미국-이란 상호 군사공격 및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, 통과화물 20% 통행료 부과 선언에 WTI +9.4% 급등하며 위험회피 심리 확산. SK하이닉스 ADR(SKHY -9.3%), 국내 증시 급락 여파와 상장 직후 차익실현 및 2분기 실적 경계감에 급락하며 메모리·반도체 동반 약세(엔비디아 -3.5%, AMD -4.2%, 인텔 -6.1%, 샌디스크 -12.6%). 반면 유가 급등에 에너지 강세(엑슨모빌 +4.1%, 셰브론 +3.3%).

② 수급 개인은 참다 참다 패닉셀, 인륜적 반등 주체 외국인

-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-4.1조, 외국인 +1조, 기관 +3.2조원 순매수(연기금 +868억원). KOSPI 밸류에이션 2008년 금융위기보다 내려간 현 시점에서 순매수 주체 부재한 것이 투매 야기했으나 금일 외국인 2조원 가량(KRX+NXT) 순매수하며 6월 18일 이후 최대 순매수(반도체 대형주 중심). 그간 주식시장 부양 주체 활약했던 개인은 금일 지수 급락 과정에서 대량 투매

③ 특징업종 반도체 쇼크

- 코스피 대형주 +1.0%, 중형주 -2.7%, 소형주 -0.8%. 1) 제약·바이오: 코스닥 바이오 대형주 알테오젠(-11.7%), 경쟁사의 핵심 기술 확보 소식에 급락, 바이오 전반 투자심리 위축. 2) 반도체: 전일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, 반도체 대형주(삼성전자 +3.3%, SK하이닉스 +3.7%) 및 소부장(주성엔지니어링 +5.5%, 피에스케이 +10.2%, 테스 +16.7%, 브이엠 +19.0%) 반등. 3) 방산: K-방산 사업 지역, 중동의 지정학적 변동성 확대에 사업 리스크 우려로 하락(한화아어로 -6.8%, LIG디펜스 -8.3%).

④ 이벤트 美 물가지표 대기

- 1) 美 6월 CPI(7/14). 2) 美 6월 PPI(7/15). 3) TSMC 2분기 실적 발표(7/16). 4) 한은 금통위(7/16). 5) 美 6월 소매판매 (7/16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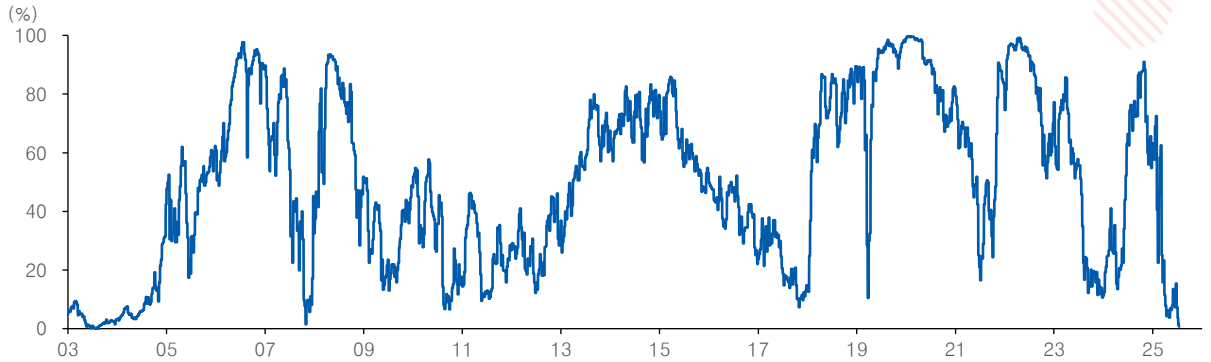
⑤ 상황 인륜적 반등에 성공한 KOSPI, 오늘밤 소비자물가를 대기

- 금일 KOSPI, KOSDAQ 각각 +0.7%, -1.9% 등락. 전일 각각 9%, 4.6% 하락 이후 KOSPI 삼성전자(+3.3%)~SK하이닉스(+3.7%) 동반 반등(+삼성전기, 스퀘어)하며 KOSPI 인륜적 반등 야기했으나 KOSDAQ은 반도체 장비주 제외하면 투심 악화 지속되는 바이오텍에서 오늘도 노이즈 발생하며 인륜적 반등조차 실패. 60일선 이탈한 KOSPI는 경기선인 120일선 지지 성공
- KOSPI 상승 종목 219개, 하락 종목 662개로 낙폭 과대 대형주 중심 반등이었으며 KOSDAQ도 상승 종목 445개 Vs. 하락 종목 1212개. 장중 지수 급락했으나 오후 V자 반등하는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ETF가 야기한 변동성 역시 오늘도 확대
- 전략) 역사적 저점,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 조차도 붕괴된 상황.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7월 13일 종가 기준 5.78배로 2003년 이후 백분위 하위 0.7% 구간. 그럼에도 연기금 등 저가 순매수 주체 부재한 상황에 연초 이후 외국인 리밸런싱 물량 받아내던 개인투자자 순매수 여력도 둔화, 외국인도 자금 유입 미미하며 투매 확대. 금일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장기 지속 가능할지 지속 확인할 필요
- 결국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두가지. 첫번째, 물가지표. 유가 재차 변동성 커지며 금리 인상 우려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표는 기준금리 인상 확률에 영향. 주식시장 뿐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의 자금조달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수
- 둘째,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이후 Capex 가이드선 상향 여부. 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30분 발표될 알파벳 실적이 그 변수일 것. Capex 가이드선 상향 조정된다면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의구심 깔끔한 해소 가능. 외국인 자금 유입 위해서는 ①

예상치 하회 소비자물가, ② 지정학적 갈등 재완화, ③ 4월 말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이후 공시됐던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가이드선 상향 및 호실적 확인이 필요한 것

- 변한 것 없이 급락해버린 현 시장, 투매보다는 관망을 관망 속 인고의 시간을 지나며 회복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.
핀더멘털 외에도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 역시 주가 상승 기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

2004년 이후 KOSPI 12개월 선행 PER 백분위



자료: 에프엔가이드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현시점 가장 중요한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일정

기업	실적발표(KST)	컨퍼런스콜(KST)	비고
알파벳(GOOG)	7/23(목) 새벽 5시 이후	새벽 5:30 경	클라우드 부문 실적 및 CapEX 가이드선
마이크로소프트(MSFT)	7/30(목) 새벽 5시 이후	새벽 6:30	FOMC 결과 발표(7/30 새벽 3시)와 같은 날
메타(META)	7/30(목) 새벽 5시 이후	새벽 6:00 경	MSFT와 동일일자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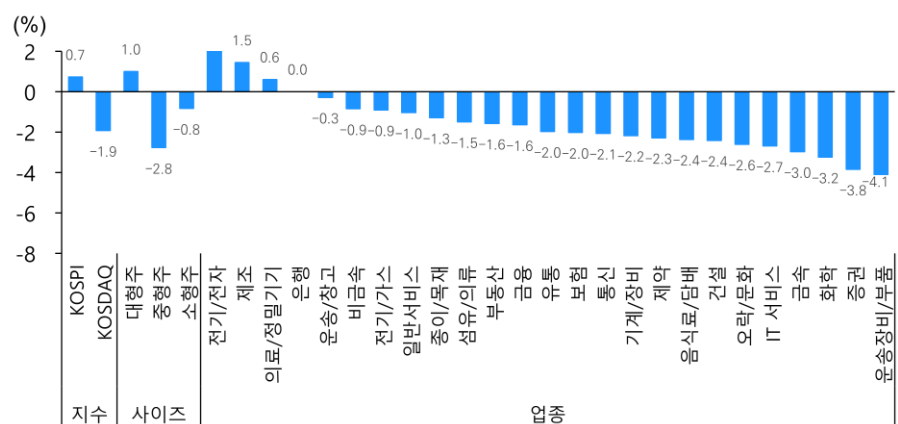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

(단위: 억원)	KOSPI	KOSDAQ
기관	32,159	1,587
외국인	9,523	-2,472
개인	-41,424	729
거래대금	458,796	65,271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일간 수익률

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이재원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